

사상체질분류검사와 성격특성검사의 비교분석을 통한 사상체질별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

박효인* · 이건인**

Abstract

A Study of Personality Traits in Sasang Constitution according to comparative analysis of QSCC II & NEO-P-I-R

Park Hyo-in* · Lee Kun-in**

* Wonkwang Univ. Counselling Center

** Department of Education at Wonkwang Univ.

This study aimed at figuring out the relations on Sasang Constitutions, and personality traits.

Four hundred fourteen university students were tested by, QSCC II, NEO-PI-R Korean version.

It is analyzed by ANOVA and Duncan post hoc multiple comparisons with Spss 9.0.

Following questions should be answered in this study.

Are there any differences in the personality traits in accordance with Sasang Constitutions?

The result of this study are follows;

It is ascertained to find out personality trait by Sasang Constitutions. In other word, they have differences in personality traits(factor of N: Neuroticism, E: Extroversion, C: Conscientiousness) in accordance with Sasang constitutions by QSCC II.

1. 서론

한의학에서 사상의학(四象醫學)은 이제마(1837~1900)가 1894년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을 저술하여, 인간의 체질적인 유형을 크게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으로 구분하고, 각 체질에 따른 생리와 병리, 치료, 양생을 연구하여 만들어 낸 독창적인 체질의학이다. 사상의학은 체질의 분류 및

체질에 따른 병증의 차이를 규명하고, 선천적인 체질의 특성에 따라 질병치료, 양생법, 일상의 언행과 마음가짐까지 다스리게 함으로써 보다 향상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인간학으로 볼 수 있다(박성식 외2인, 1999). 즉 사상의학은 유학의 기본 정신인 '수기치인(修己治人)'의 한 방법론이다. 수기(修己)의 한 방법으로 '지인정기(知人正己)'가 나왔는데 이제마는 그의 저서 『격치교(格致藥)』의 「독행편(獨行篇)」

* 원광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연구원

** 원광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교신저자 : 박효인 주소) 전북 익산시 모현동 현대2차 Apt. 206-201 전화) 063-850-5564 E-mail) couns5@hanmail.net

에서 지인(知人)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사람에게는 누구나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착한 四성과 鄙薄貪懦(무례하고, 천박하고, 탐욕스럽고, 나태함)의 나쁜 사욕이 있다. 성인군자라도 예외가 될 수 없는데 다만 성인은 ‘性’과 ‘慾’ 중에서 ‘性’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뿐이다. 결국 어느 것을 더 많이 개발하는가에 따라 성인이 될 수도 있고 범인이 될 수도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비박탐나(鄙薄貪懦)의 마음이 있지만 그것이 발로되는 정도는 체질마다 다르다(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1998).

따라서 체질과 심욕(心慾)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편 심리학에서 성격의 특성이란 인간의 행동으로부터 추론되는 안정되고 일관성 있는 반응경향성이다. 성격특성이론은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성격특성은 몇 개이며, 또 그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최근 성격특성 연구들은 인간의 기본적인 성격의 차원은 5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개 요인은 개인들 간의 차이 뿐만 아니라 행동을 포괄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Borwin & Buss,(1989); Goldberg,(1981, 1989); Digman&Inouye(1986); McCrea & Costa, (1985, 1987); Peabody & Goldberg, (1989)). “5요인 구조설(Big five Structure/ Five factor Model)”은 인간에 내재하는 공통적인 요인은 5개이며, 이들 요인은 인간행동을 예언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Costa와 McCrea(1992d)는 1960년부터 1990년까지의 여러 성격 심리학 이론에 기초하여 제작된 CPI, MBTI, MMPI 등의 성격검사들을 결합요인분석(joint factor analysis)하여 공통적으로 추출되는 요인들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이 연구들을 통하여 성격특성이란 ‘행동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는, 일반화된 경향성’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5개 성격특성 요인-정서적 민감성, 외향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후 개방성이라 칭함), 친화성, 성실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이경임,1995).

본 연구에서는 인간 행동의 일반화된 지속적인 경향성으로서의 성격특성과 이제마의 사상체질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QSCCⅡ 사상체질검사와 NEO-PI-R인성검사를 가지고 사상체질별 성격의 특성을

분석하여 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QSCCⅡ(사상 체질 검사)에 의한 사상체질과 NEO-PI-R(성격특성검사)에 의한 성격특성의 5요인과 그 하위요인 30개와는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연구목적에 구두로 동의한 4년제 대학의 심리학에 관련된 교양선택과목이나 교직과목 수강자들 41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도구

1) NEO-PI-R(성격특성검사)

Costa와 McCrea가 개발한 NEO-PI-R(The 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인성검사는 이경임(1995)에 의해 표준화되었으며, 5요인 구조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정당성과 더불어 5요인을 모두 30개 요인으로 세부화하여(<표 1>참조), 개인의 인성을 설명한다.

표 1. NEO-PI-R인성검사의 5개 요인구조

5요인	하 위 요 인					
정서적 민감성 Neuroticism	불안 (N1)	분노 (N2)	우울 (N3)	자의식 (N4)	충동 (N5)	심약 (N6)
외향성 Extraversion	온정 (E1)	사교 (E2)	주장 (E3)	활동 (E4)	자극 추구 (E5)	긍정적 정서 (E6)
개방성 Openness	상상 (O1)	심미 (O2)	감정 (O3)	행동 (O4)	사고 (O5)	가치 (O6)
친화성 Agreeableness	신뢰 (A1)	솔직 (A2)	이타 (A3)	순응 (A4)	겸손 (A5)	동정 (A6)
성실성 Conscientiousness	유능감 (C1)	정연성 (C2)	충실성 (C3)	성취 갈망 (C4)	자기 규제 (C4)	신중성 (C6)

NEO-PI-R인성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살펴보면 내적합치도 Croanbach 알파(α)계수는 5요인에서 0.86~0.92, 관찰자 양식의 내적 합치도는 0.89~0.95를 나타내며, 하위요인에서 자기보고 양식의 내적 합치도는 0.56~0.81, 관찰자 양식의 내적 합치도

는 0.60~0.90으로 나타났다. NEO-PI-R의 자기보고 양식과 관찰자 양식에 있어서 재검사 신뢰도는 0.68~0.83이었다.

NEO-PI-R은 5요인 구조설에 기초하여 제작된 도구로서, 내적 구조가 5요인 구조에 얼마나 일치하는가에 따라 그 타당성이 검증될 수 있다. NEO-PI-R은 대학생 집단(N=1000명)에서 실시한 결과 정서적 민감성(N), 외향성(E), 개방성(O), 친화성(A), 성실성(C)에서 5요인 구조를 나타내었다. 하위요인 가운데 정해진 요인 이외에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난 요인은 N2(분노), E4(활동), O3(감정의 개방성), A3(이타), C1(유능감)이었다. 그리고 성별, 인종별, 연령별, 요인 일치계수는 0.91~0.99로써, 성별, 인종별, 연령별에서 동일하게 5요인 구조를 나타내었다(Costa, McCrea, & Dye, 1991)

2) QSCC II (사상체질검사)

김선호는 질문지에 의한 사상체질 감별법(QSCC; Questionnaire for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김선호, 1993))을 만들고 QSCC II(김선호, 1996)를 개정하였다. QSCC II의 체질진단 정확율은 79.08%로 보고되었다.

3. 자료처리 방법

모든 자료는 Window용 SPSS 9.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NEO-PI-R의 하위척도들의 연속점수와 사상체질별 간의 연관성의 정도는 ANOVA로 통계적 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를 Duncan의 다중비교에 의해 사후검증을 하였으며 통계적 의의는 $p < 0.05$ 로 하였다.

III. 연구 결과

전체 412명 중 <표 2> 빈도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성별에 관하여 응답하지 않은 사람이 30명이었고 남녀는 각각 191명씩 382명이 응답하였다. 전체 표집의 <표 3>의 체질에 관한 빈도표를 보면 태양인 및 미분류가 81명(19.7%)이었고, 소양인이 112명(27.2%)이었으며, 태음인이 97명(23.5%)이었고, 소음인은 122명(29.6%)이었다. 체질과 성별에 의한 교차분석표는 <표 4>와 같다. 표에 의하면

태양인은 여자가 더 많은 분포를 보였고, 소양인은 남자가 더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태음인은 큰 차이는 없었으나 여자가 더 많은 분포를 보였고, 소음인은 남자에서 더 많은 분포를 보였다.

표 2. 성별빈도표

성별	빈도	백분율
남	191	46.4
여	191	46.4
합	382	92.7
누락사례	30	7.3
전체	412	100.0

표 3. 체질 빈도표

체질	빈도	백분율
태양인 및 미분류	81	19.7
소양인	112	27.2
태음인	97	23.5
소음인	122	29.6
전체	412	100.0

표 4. 체질·성별 교차분석표

체 질	성별		전 체
	남	여	
태양인 및 미분류	25	40	65
소양인	59	49	108
태음인	44	47	91
소음인	63	55	118
합	191	191	382

사상체질에 따른 성격특성의 각 요인별 분석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사상체질에 따른 정서적 민감성(N)요인 및 정서적 민감성 하위요인(N1-N6)의 결과 해석
 사상체질에 따라 정서적 민감성(N:Neuroticism) 및 이의 하위요인(N1-N6)의 점수에 대한 일원변량분석

(ANOVA)을 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사상체질에 따라 정서적 민감성(N) 및 이의 불안(N1), 우울(N3), 자의식(N4), 심약(N6)의 하위요인은 0.0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인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분노(N2), 충동(N5)의 하위요인에서는 통계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사상체질에 따른 정서적 민감성(N) 및 이의 하위요인(N1-N6)의 Duncan 사후 검증을 보면 <표5-1> ~ <표5-7>과 같다.

표 5-1. 정서적 민감성(N)의 Duncan사후검증

체질	사례수	유의수준=0.5		
		1	2	3.
1.태양인	75	*		
2.소양인	111	*	*	
3.태음인	96		*	*
4.소음인	120			*

표 5-2. 불안(N1)하위요인의 Duncan사후검증

체질	사례수	유의수준=0.5	
		1	2
1.태양인	75	*	
3.태음인	96	*	
2.소양인	111	*	
4.소음인	120		*

표 5-3. 분노(N2)하위요인의 Duncan사후검증

체질	사례수	유의수준=0.5	
		1	2
1.태양인	75	*	
2.소양인	111	*	*
3.태음인	96		*
4.소음인	120		*

표 5-4. 우울(N3)하위요인의Duncan사후검증

체질	사례수	유의수준=0.5	
		1	2
1.태양인	75	*	
3.태음인	111	*	
2.소양인	96	*	*
4.소음인	120		*

표 5-5. 자의식(N4)하위요인의 Duncan사후검증

체질	사례수	유의수준=0.5	
		1	2
2.소양인	111	*	
1.태양인	75	*	
3.태음인	96	*	
4.소음인	120		*

표 5-6. 충동(N5)하위요인의 Duncan사후검증

체질	사례수	유의수준=0.5	
		1	2
4.소음인	120	*	
2.소양인	111	*	*
1.태양인	75	*	*
3.태음인	96		*

표 5-7. 심약(N6)하위요인의 Duncan사후검증

체질	사례수	유의수준=0.5		
		1	2	3.
1.태양인	75	*		
2.소양인	111	*	*	
3.태음인	96		*	*
4.소음인	120			*

정서적 민감성(N) 척도는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와 그에 대한 적응의 정도를 나타내는데, <표5-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유의수준 0.05에서 태양인은 태음인과 차이가 나며, 소양인과 소음인 역시 차이가 나며, 태양인과 소음인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난다. 정서적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못하고, 생활에서 부적응을 나타내며, 부정적인 정서들을 빈번하게 경험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잘 견디거나 대처하지 못하며, 심약하다. 정서적 민감성(N)에서 태양인과 소양인은 차이가 나지 않으며, 소양인과 태음인은 차이가 나지 않고, 태음인과 소음인 역시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소음인>소양인, 태음인>태양인, 소음인>태양인) 정서적 민감성 척도의 하위요인에 대한 사후검증을 보면 다음과 같다.

불안(N1:Anxiety) 하위요인은 특정한 대상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막연한 걱정, 불안, 긴장, 두려움의 정도를 나타내는데, <표5-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표 5. 사상체질에 따른 정서적 민감성(N) 및 하위요인(N1-N6)의 차이에 대한 변량분석표

요인	사상체질	N	M	SD	SV	SS	df	MS	F	Sig.
N(정서적 민감성)	1.태양인	57	58.21	9.02	집단간	1333.72	3	444.57	4.67	.003
	2.소양인	111	58.98	10.37						
	3.태음인	96	61.26	9.81	집단내	37857.42	398	95.12		
	4.소음인	120	62.79	9.56	전 체	39191.14	401			
	전체	402	60.52	9.89						
N1(불안)	1태양인0	75	56.31	9.81	집단간	1413.73	3	471.25	5.70	.001
	2.소양인	111	57.62	9.09						
	3.태음인	96	57.43	9.18	집단내	32879.88	398	82.61		
	4.소음인	120	61.19	8.54	전 체	34293.62	401			
	전체	402	58.41	9.25						
N2(분노)	1.태양인	75	55.02	10.71	집단간	1017.91	3	339.30	2.38	.069
	2.소양인	111	55.94	12.20						
	3.태음인	96	58.67	12.56	집단내	56769.70	398	142.64		
	4.소음인	120	58.73	11.93	전 체	57787.61	401			
	전체	402	57.25	12.00						
N3(우울)	1.태양인	75	56.86	11.45	집단간	1615.83	3	538.61	4.21	.006
	2.소양인	111	57.86	10.57						
	3.태음인	96	59.84	11.56	집단내	50928.09	398	127.96		
	4.소음인	120	62.06	11.69	전 체	52543.92	401			
	전체	402	59.40	11.45						
N4(자의식)	1.태양인	75	55.74	9.18	집단간	1796.50	3	598.83	6.30	.000
	2.소양인	111	55.76	10.31						
	3.태음인	96	57.71	10.09	집단내	37819.08	398	95.02		
	4.소음인	120	60.68	9.27	전 체	39615.57	401			
	전체	402	57.67	9.94						
N5(충동)	1.태양인	75	55.43	10.34	집단간	748.40	3	249.46	2.10	.099
	2.소양인	111	55.38	12.20						
	3.태음인	96	56.83	10.49	집단내	47220.84	398	118.64		
	4.소음인	120	53.17	10.25	전 체	47969.22	401			
	전체	402	55.08	10.94						
N6(심약)	1.태양인	75	59.19	9.66	집단간	1596.39	3	532.13	4.97	.002
	2.소양인	111	59.64	11.36						
	3.태음인	96	62.45	10.81	집단내	42621.25	398	107.09		
	4.소음인	120	63.95	9.37	전 체	44217.64	401			
	전체	402	61.51	10.50						

같이 유의수준 0.05에서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은 소음인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난다. 즉 소음인은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보다 자주 긴장되고, 불안 초조하다.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은 소음인에 비해 느긋하고 근심 걱정이 없으며, 태연하고 이완되어 있다.

분노(N2: Angry Hostility) 하위요인은 좌절, 적의 비통 등을 경험하고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데, <표 5-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유의수준 0.05에서 태양인은 태음인, 소음인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난다. 즉 태음인, 소음인은 좌절을 경험하는 상황에서 타인에게 분노와 적의를 많이 느낀다. 그러나 태양인은 욕구가 좌절되거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타인에게 거의 분노를 느끼지 않는다.

우울(N3: Depression) 하위요인은 우울한 정서의 경험 정도를 나타내는데 <표 5-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유의수준 0.05에서 태양인, 태음인은 소음인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난다. 즉 소음인은 태양인, 태음인에 비해 외로움, 무력감, 좌절감, 슬픔을 더 많이 경험하며, 어려움이 있을 때 의기소침해지고 단념하는 경향이 있다. 태양인과 태음인은 일상생활에서 거의 외로워하거나 무력해 하지 않는 편이다.

자의식(N4: Self-consciousness) 하위요인은 사회적 관계에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수줍음과 당혹감을 말하며 사회적 불안을 반영하는 자각지심이 핵심서인데, <표 5-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유의수준 0.05에서 소양인, 태양인, 태음인은 소음인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난다. 즉 소음인은 소양인, 태양인, 태음인보다 사회적 관계에서 타인을 의식하고 불편감을 많이 느낀다.

충동(N5: Impulsiveness) 하위요인은 욕망이나 갈망의 억제 수준을 의미하는데, <표 5-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유의수준 0.05에서 소음인은 태음인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난다. 즉 소음인은 욕망이나 갈망에 대한 억제 수준이 태음인에 비해서 낮아서 자신들의 욕구를 잘 조절하며 욕구 좌절의 상황에서도 잘 참고 견디나, 태음인은 소음인에 비해 자신들의 욕구에 대한 갈망이 강하여 나중에 후회하게 되더라도 그러한 욕구들이 일어날 때 참고 버티지 못한다.

심약(V6: Vulnerability) 하위요인은 스트레스에 대

하여 상처받는 정도를 나타내는데, <표 5-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유의수준 0.05에서 태양인은 태음인과 그리고 소양인은 소음인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난다. 즉 태양인은 태음인에 비해 그리고 소양인은 소음인에 비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스스로 잘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자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소음인은 소양인에 비해 그리고 태음인은 태양인에 비해 위기 상황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타인에게 의존하는 태도를 갖는다.

나. 사상체질에 따른 외향성(E) 및 외향성 하위요인(E1-E6)의 결과 해석

사상체질에 따라 외향성(E: Extraversion) 및 이의 하위요인의 점수를 일원변량분석(ANOVA)을 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사상체질에 따라 외향성 및 이의 온정(E1), 사교(E2), 주장(E3), 활력(E4), 자극추구(E5), 긍정적 정서(E6)의 모든 하위요인은 0.0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사상체질에 따른 외향성(E) 및 이의 하위요인(E1-E6)의 Duncan 사후 검증을 보면 <표 6-1> ~ <표 6-7>과 같다.

외향성(E)이 높은 사람은 사교적이고 모임을 좋아하며 적극적이고 자기 주장을 잘하며, 자극과 흥분을 좋아하고 열성적이며, 낙천적이고 모험심이 필요하거나 진취적인 직업에 흥미를 느낀다. <표 6-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외향성(E)은 유의

표 6-1. 외향성(E)요인의 Duncan사후검증

체질	사례수	유의수준=0.5	
		1	2
4.소음인	120	*	
1.태양인	75		*
2.소양인	111		*
3.태음인	96		*

표 6-2. 온정(E1)하위요인의 Duncan사후검증

체질	사례수	유의수준=0.5	
		1	2
4.소음인	120	*	
1.태양인	75		*
2.소양인	96		*
3.태음인	111		*

표 6. 사상체질에 따른 NEO-P-I-R의 외향성(E) 및 하위요인(E1-E6)의 차이에 대한 변량분석표

요인	사상체질	N	M	SD	SV	SS	df	MS	F	Sig.
E(외향성)	1.태양인	75	45.89	12.90	집단간	5825.34	3	1941.78	14.76	0.000
	2.소양인	111	46.10	11.04						
	3.태음인	96	46.56	11.26	집단내	52351.12	398	131.54		
	4.소음인	120	37.90	11.08	전 체	58176.46	401			
	전체	402	43.72	12.04						
E1(온정)	1.태양인	75	59.30	11.56	집단간	2899.87	3	966.62	8.35	0.000
	2.소양인	111	51.36	10.36						
	3.태음인	96	50.39	10.98	집단내	46080.24	398	115.78		
	4.소음인	120	44.95	10.43	전 체	48980.11	401			
	전체	402	49.02	11.05						
E2(사교)	1.태양인	75	43.37	13.31	집단간	4998.19	3	1666.06	10.01	0.000
	2.소양인	111	43.35	12.32						
	3.태음인	96	43.90	13.55	집단내	66146.90	398	166.20		
	4.소음인	120	35.85	12.60	전 체	71145.09	401			
	전체	402	41.24	13.32						
E3(주장)	1.태양인	75	44.93	12.17	집단간	3898.41	3	1299.47	11.09	0.000
	2.소양인	111	42.65	10.65						
	3.태음인	96	43.60	10.90	집단내	46642.75	298	117.19		
	4.소음인	120	36.98	10.01	전 체	50541.15	401			
	전체	402	41.61	11.23						
E4(활력)	1.태양인	75	45.01	11.67	집단간	2366.05	3	788.68	5.78	0.001
	2.소양인	111	45.82	10.48						
	3.태음인	96	46.09	11.95	집단내	54345.16	398	136.55		
	4.소음인	120	40.47	12.51	전 체	56711.21	401			
	전체	402	44.15	11.89						
E5(자극추구)	1.태양인	75	45.38	12.64	집단간	1854.40	3	618.13	3.97	0.008
	2.소양인	111	45.26	12.43						
	3.태음인	96	47.50	12.40	집단내	62005.94	398	155.79		
	4.소양인	120	41.76	12.49	전 체	63860.33	401			
	전체	402	44.77	12.62						
E6(긍정적 정서)	1.태양인	75	52.31	12.51	집단간	5468.35	3	1822.78	12.32	0.000
	2.소양인	111	54.10	11.66						
	3.태음인	96	53.24	10.81	집단내	58881.25	398	147.94		
	4.소음인	120	45.38	13.36	전 체	64349.60	401			
	전체	402	50.95	12.66						

표 6-3. 사고(E2)하위요인의 Duncan사후검증

체질	사례수	유의수준=0.5	
		1	2
4.소음인	120	*	
2.소양인	111		*
1.태양인	75		*
3.태음인	96		*

표 6-4. 주장(E3)하위요인의 Duncan사후검증

체질	사례수	유의수준=0.5	
		1	2
4.소음인	120	*	
2.소양인	111		*
3.태음인	96		*
1.태양인	75		*

표 6-5. 활력(E4)하위요인의 Duncan사후검증

체질	사례수	유의수준=0.5	
		1	2
4.소음인	120	*	
1.태양인	75		*
2.소양인	111		*
3.태음인	96		*

표 6-6. 자극추구(E5)하위요인의 Duncan사후검증

체질	사례수	유의수준=0.5	
		1	2
4.소음인	120	*	
2.소양인	111	*	*
1.태양인	75	*	*
3.태음인	96		*

표 6-7. 긍정적 정서(E6)하위요인의 Duncan사후검증

체질	사례수	유의수준=0.5	
		1	2
4.소음인	120	*	
1.태양인	75		*
3.태음인	96		*
2.소양인	111		*

수준 0.05에서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이 소음인과 구별되었다. 즉 소음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외향성을 보였으며 이 중 태음인이 가장 외향성 점수가 높은 집단이었다.

온정(E1: Warmth) 하위요인은 대인관계의 친밀감을 나타내는데, <표6-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유의수준 0.05에서 소음인은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난다. 즉 태음인, 소양인, 태양인은 소음인에 비해서 대인관계에서 다정하고 친근한 태도를 보이며 타인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쉽게 친해질 수 있다. 소음인은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에 비해서 타인에게 서먹하고 딱딱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한다. 가장 온정성이 높은 집단은 태음인 집단이었다.

사고(E2: Gregariousness) 하위요인은 타인과의 교제에 대한 선호도를 나타내는데, <표6-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0.05의 유의수준에서 소음인은 소양인, 태양인, 태음인과 통계적인 차이가 난다. 즉 소양인, 태양인, 태음인은 내향적 소음인에 비해 사람 사귀기를 좋아하나 소음인은 소양인, 태양인, 태음인에 비해 타인과의 교제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가장 사교성이 높은 집단은 태음인 집단이었다.

주장(E3: Assertiveness)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욕구와 사회적 지배력을 의미하는데, <표6-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소음인은 소양인, 태음인, 태양인에 비해 주장성이 차이가 난다. 즉 소양인, 태양인, 태음인은 자신을 나타내는데 주저하지 않으며, 자기 주장을 소음인에 비해 잘하며 집단에서 배경의 역할보다는 지도자의 역할을 잘 한다. 주장성이 가장 높은 집단은 태양인 집단이었다.

활력(E4: Activity) 하위요인은 빠른 속도감과 정열적인 움직임, 에너지를 의미하는 데 <표6-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유의수준 0.05에서 소음인은 소양인, 태양인, 태음인과 통계적인 차이를 보인다. 즉 소양인, 태양인, 태음인은 소음인보다 활발하고 정열적이며, 늘 바쁘게 사는 사람이다. 가장 활력 있는 집단은 태음인이었다.

자극추구(E5: Excitement-Seeking) 하위요인은 자극과 흥분에 대한 갈망을 의미하는데, <표6-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유의수준 0.05에서 소음인은 소양인, 태양인, 태음인과 통계적인 차이를 보인다. 즉 소양인, 태양인, 태음인은 소음인보다 밝은 색을 좋아하고 소란스러운 환경을 좋아한다. 자극추구 하위요인의 척도가 가장 높은 집단은 태음인 집단이었다.

긍정적인 정서(E6: Positive Emotion) 하위요인은 기쁨, 행복, 사랑, 흥분 등의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정도를 나타내는데, <표6-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유의수준 0.05에서 소음인은 태양인, 태

표 7. 사상체질에 따른 개방성(O) 및 하위요인(O1-O6)의 차이에 대한 변량분석표

요인	사상체질	N	M	SD	SV	SS	df	MS	F	Sig.
O(개방성)	1.태양인	75	50.01	10.17	집단간	205.22	3	68.41	0.62	0.602
	2.소양인	111	50.75	10.25						
	3.태음인	96	50.86	10.09	집단내	43854.12	398	110.19		
	4.소음인	120	49.17	11.21	전 체	44059.34	401			
	전체	402	50.17	10.48						
O1(상상)	1.태양인	75	57.13	11.36	집단간	367.09	3	122.36	0.99	0.399
	2.소양인	111	58.10	10.77						
	3.태음인	96	59.01	9.64	집단내	49348.93	398	123.99		
	4.소음인	120	56.55	12.37	전 체	49716.03	401			
	전체	402	57.67	11.13						
O2(심미)	1.태양인	75	47.51	10.11	집단간	243.67	3	81.22	0.68	0.567
	2.소양인	111	49.54	11.01						
	3.태음인	96	47.76	11.18	집단내	47754.73	398	119.99		
	4.소음인	120	48.45	11.22	전 체	47998.40	401			
	전체	402	48.41	10.94						
O3(감정)	1.태양인	75	52.10	9.31	집단간	80.82	3	26.941	0.26	0.853
	2.소양인	111	53.07	10.24						
	3.태음인	96	52.05	9.88	집단내	41015.23	398	103.053		
	4.소음인	120	52.87	10.77	전 체	41096.05	401			
	전체	402	52.59	10.12						
O4(행동)	1.태양인	75	50.18	10.31	집단간	543.76	3	181.26	1.48	0.219
	2.소양인	111	49.79	11.04						
	3.태음인	96	51.82	11.32	집단내	48649.18	398	122.23		
	4.소음인	120	48.65	11.31	전 체	49192.95	401			
	전체	402	50.01	11.08						
O5(독창)	1.태양인	75	45.28	11.48	집단간	272.64	3	90.88	0.77	0.513
	2.소양인	111	44.45	10.67						
	3.태음인	96	45.76	10.72	집단내	47146.63	398	118.46		
	4.소음인	120	43.65	10.83	전 체	47419.27	401			
	전체	402	44.68	10.87						
O6(가치)	1.태양인	75	48.48	10.73	집단간	312.90	3	104.30	0.92	0.430
	2.소양인	111	48.39	10.30						
	3.태음인	96	47.88	11.37	집단내	45027.50	398	113.13		
	4.소음인	120	46.37	10.27	전 체	45340.40	401			
	전체	402	47.68	10.63						

음인, 소양인과 통계적인 차이를 나타낸다. 즉 소양인, 태음인, 태양인은 소음인에 비해 쉽게 자주 웃으며, 항상 유쾌하고 낙천적이다. 소음인이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에 비해 반드시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아니고 단지 풍부한 사랑이나 기쁨, 행복감을 잘 느끼지 못할 뿐이다. 긍정적인 정서가 가장 높은 사람은 소양인이었다.

다. 사상체질에 따른 개방성(O)요인 및 개방성의 하위요인(O1-O6)의 결과 해석

사상체질에 따라 개방성(O: Openness) 및 이의 하위요인(O1-O6)의 점수를 일원변량분석(ANOVA)을 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사상체질에 따라 개방성(O) 및 이의 하위요인(상상(O1:Fantasy), 심미(O2:Aesthetics), 감정(O3: Feeling), 행동(O4: Actions), 사고(O5:Ideas), 가치(O6:Values) 모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개방성(O)은 독자적인 판단, 풍부한 상상, 심미적 감수성, 내적 감정에 대한 민감성, 변화에 대한 선호, 지적 호기심을 나타낸다. 개방성의 하위요인들을 살펴보면 상상(O1)은 풍부한 상상력과 이를 즐기는 정도를 나타내며, 심미(O2)는 예술과 미에 대한 깊은 감수성을 의미하고, 감정(O3)은 내면의 감정의 깊이와 정도에 대한 센스와 생활에서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행동(O4)은 다양하게 행동할 가능성을 나타내며, 사고(O5)는 광범위한 지적 호기심을 나타내며, 가치(O6)는 기존 가치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 가치들에 대한 융통성과 개방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개방성 요인과 이의 하위요인들은 <표 7>과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각 체질별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상체질에 따른 개방성(O) 및 개방성 하위요인(O1-O6)의 Duncan 사후 검증을 보면 <표7-1>~<표7-7>과 같다.

표 7-1. 개방성(O)요인의 Duncan 사후검증

체질	사례수	유의수준=0.5	
		1	
4.소음인	120	*	
1.태양인	75	*	
2.소양인	111	*	
3.태음인	96	*	

표 7-2. 상상(O1)하위요인의 Duncan 사후검증

체질	사례수	유의수준=0.5	
		1	
4.소음인	120	*	
1.태양인	75	*	
2.소양인	111	*	
3.태음인	96	*	

표 7-3. 심미(O2)하위요인의 Duncan 사후검증

체질	사례수	유의수준=0.5	
		1	
1.태양인	75	*	
3.태음인	96	*	
4.소음인	120	*	
2.소양인	111	*	

표 7-4. 감정(O3)하위요인의 Duncan 사후검증

체질	사례수	유의수준=0.5	
		1	
3.태음인	96	*	
1.태양인	75	*	
4.소음인	120	*	
2.소양인	111	*	

표 7-5. 행동(O4)하위요인의 Duncan 사후검증

체질	사례수	유의수준=0.5	
		1	
4.소음인	120	*	
2.소양인	111	*	
1.태양인	75	*	
3.태음인	96	*	

표 7-6. 독창(O5)하위요인의 Duncan 사후검증

체질	사례수	유의수준=0.5	
		1	
4.소음인	120	*	
2.소양인	111	*	
1.태양인	75	*	
3.태음인	96	*	

표 7-7. 가치(O6)하위요인의 Duncan 사후검증

체질	사례수	유의수준=0.5	
		1	
4.소음인	120	*	
3.태음인	96	*	
2.소양인	111	*	
1.태양인	75	*	

표 8. 사상체질에 따른 친화성(A) 및 하위요인(A1-A6)의 차이에 대한 변량분석표

요인	사상체질	N	M	SD	SV	SS	df	MS	F	Sig.
A(친화성)	1.태양인	75	49.25	8.22	집단간	122.22	3	40.80	0.46	0.71
	2.소양인	111	49.75	10.51						
	3.태음인	96	48.23	9.26	집단내	35547.13	398	89.31		
	4.소음인	120	49.00	9.28	전 체	35669.35	401			
	전체	402	49.07	9.43						
A1(신뢰)	1.태양인	75	49.77	10.36	집단간	1206.88	3	402.29	3.48	0.016
	2.소양인	111	48.41	11.27						
	3.태음인	96	48.67	10.89	집단내	45953.84	398	115.46		
	4.소음인	120	45.21	10.36	전 체	47160.72	401			
	전체	402	47.77	10.84						
A2(솔직)	1.태양인	75	44.12	11.49	집단간	660.92	3	220.31	1.69	0.170
	2.소양인	111	46.69	11.74						
	3.태음인	96	44.43	11.87	집단내	52040.80	398	130.76		
	4.소음인	120	47.03	10.73	전 체	52701.72	401			
	전체	402	45.77	11.46						
A3(이타)	1.태양인	75	48.10	9.45	집단간	806.02	3	268.67	3.21	0.023
	2.소양인	111	48.42	9.62						
	3.태음인	96	45.88	9.05	집단내	33281.86	398	83.62		
	4.소음인	120	45.20	8.56	전 체	34087.88	401			
	전체	402	46.79	9.22						
A4(순응)	1.태양인	75	50.05	9.17	집단간	135.56	3	45.19	0.41	0.745
	2.소양인	111	50.26	11.07						
	3.태음인	96	48.76	10.93	집단내	43698.01	398	109.79		
	4.소음인	120	49.97	10.30	전 체	43833.57	401			
	전체	402	49.77	10.45						
A5(겸손)	1.태양인	75	50.81	10.46	집단간	606.97	3	202.32	1.70	0.167
	2.소양인	111	51.82	10.94						
	3.태음인	96	51.16	9.98	집단내	47380.55	398	119.05		
	4.소음인	120	53.90	11.83	전 체	47987.52	401			
	전체	402	52.09	10.94						
A6(동정)	1.태양인	75	54.66	8.90	집단간	134.88	3	44.96	0.462	0.709
	2.소양인	111	53.93	10.28						
	3.태음인	96	54.55	10.14	집단내	38768.72	398	97.41		
	4.소음인	120	55.45	9.83	전 체	38903.60	401			
	전체	402	54.67	9.85						

<표7-1> ~ <표7-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개방성의 모든 하위요인에 대한 사후검증 역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라. 사상체질에 따른 친화성(A)요인 및 친화성의 하위요인(A1-A6)의 결과 해석

사상체질에 따라 정서적 친화성(A: Agreeableness) 및 이의 하위요인(A1-A6)의 점수를 일원변량분석(ANOVA)을 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친화성과 이의 하위요인 중 솔직(A2), 순응(A4), 겸손(A5), 동정(A6) 하위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신뢰(A1), 이타(A3) 하위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친화성(A) 및 이의 하위요인(A1-A6)에 대한 Duncan 사후검증 결과는 <표8-1> ~ <표8-7>과 같다.

표 8-1. 친화성(A)의 Duncan 사후검증

체질	사례수	유의수준=0.5	
		1	
3.태음인	96	*	
4.소음인	120	*	
1.태양인	75	*	
2.소양인	111	*	

표 8-2. 신뢰(A1)하위요인의 Duncan 사후검증

체질	사례수	유의수준=0.5	
		1	2
4.소음인	120	*	
2.소양인	111		*
3.태음인	96		*
1.태양인	75		*

표 8-3. 솔직(A2)하위요인의 Duncan 사후검증

체질	사례수	유의수준=0.5	
		1	
1.태양인	75	*	
3.태음인	96	*	
2.소양인	111	*	
4.소음인	120	*	

표 8-4. 이타(A3)하위요인의 Duncan 사후검증

체질	사례수	유의수준=0.5	
		1	2
4.소음인	120	*	
3.태음인	96	*	
1.태양인	75		*
2.소양인	111		*

표 8-5. 순응(A4)하위요인의 Duncan 사후검증

체질	사례수	유의수준=0.5	
		1	
3.태음인	96	*	
4.소음인	120	*	
1.태양인	75	*	
2.소양인	111	*	

표 8-6. 겸손(A5)하위요인의 Duncan 사후검증

체질	사례수	유의수준=0.5	
		1	
1.태양인	75	*	
3.태음인	96	*	
2.소양인	111	*	
4.소음인	120	*	

표 8-7. 동정(A6)하위요인의 Duncan 사후검증

체질	사례수	유의수준=0.5	
		1	
2.소양인	111	*	
3.태음인	96	*	
1.태양인	75	*	
4.소음인	120	*	

친화성(A)은 애타심과 이타심이 핵심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표8-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신뢰(A1: Trust)는 타인에게 정직하고 선의를 가지고 있으며, 쉽게 믿는 경향을 측정하는데 <표8-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유의수준 0.05에서 소음인은 소양인 태음인, 태양인과 통계적인 차이를 보였다. 즉 소양인, 태음인, 태양인은 소음인보다 타인에게 정직하고 선의를 가지며 쉽게 믿는 경향이 있다. 태양인이 신뢰하위요인의 척도가 가장 높았다.

솔직(A2: Straightwardness)는 진실하고 솔직하며 꾸밈이 없는 태도에 대한 경향을 측정하는데, <표 8-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타(A3: Altruism) 하위요인은 타인의 안녕에 실재로 걱정하고, 관심을 가지며 자신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나 도와주려는 경향에 대한 측정을 하

는데, <표8-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유의수준 0.05에서 소음인은 태양인, 소양인과 통계적인 차이를 보였다. 즉 태양인과 소양인은 소음인보다 이타 하위요인 척도가 높다. 소음인은 태양인 소양인보다 다소 자기 중심적이며, 타인의 문제에 연관되기를 원치 않는다.

순응(A4: Compliance) 하위요인은 대인관계의 갈등상황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데 <표8-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겸손(A5: Modest) 하위요인의 점수가 높은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며, 겸손한 경향을 측정하는데 <표8-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동정(A6: Tender-Mindedness)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불행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을 측정하는데 <표8-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마. 사상체질에 따른 성실성(C)요인 및 성실성의 하위요인(C1-C6)의 결과 해석

사상체질에 따라 성실성(C: Conscientiousness) 및 이의 하위요인(C1-C6)의 점수를 일원변량분석(ANOVA)을 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성실성(O)과 정연성(C2), 신중성(C6) 하위요인은 사상체질에 따라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나타났으나 유능감(C1), 충실성(C3), 성취갈망(C4), 자기규제(C5) 하위요인은 사상체질에 따라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사상체질에 따른 성실성(C)와 이의 하위요인(C1-C6)의 Duncan 사후 검증 결과를 해석하면 <표 9-1> ~ <표9-7> 다음과 같다.

표 9-1. 성실성(C)요인의 Duncan 사후검증

체질	사례수	유의수준=0.5	
		1	2
2.소양인	96	*	
3.태음인	111	*	*
1.태양인	75		*
4.소음인	120		*

표 9-2. 유능감(C1)하위요인의 Duncan 사후검증

체질	사례수	유의수준=0.5	
		1	
3.태음인	96	*	
2.소양인	111	*	
4.소음인	120	*	
1.태양인	75		*

표 9-3. 정연성(C2)하위요인의 Duncan 사후검증

체질	사례수	유의수준=0.5	
		1	2
3.태음인	96	*	
2.소양인	111	*	
1.태양인	75	*	*
4.소음인	120		*

표 9-4. 충실성(C3)하위요인의 Duncan 사후검증

체질	사례수	유의수준=0.5	
		1	2
3.태음인	96	*	
2.소양인	111	*	*
1.태양인	75	*	*
4.소음인	120		*

표 9-5. 성취갈망(C4)하위요인의 Duncan 사후검증

체질	사례수	유의수준=0.5	
		1	2
3.태음인	96	*	
2.소양인	111	*	*
1.태양인	75	*	*
4.소음인	120		*

표 9-6. 자기규제(C5)하위요인의 Duncan 사후검증

체질	사례수	유의수준=0.5	
		1	
3.태음인	96	*	
4.소음인	111	*	
2.소양인	120	*	
1.태양인	75		*

표 9. 사상체질에 따른 성실성(C) 및 하위요인(C1-C6)의 차이에 대한 변량분석표

요인	사상체질	N	M	SD	SV	SS	df	MS	F	Sig.
C(성실성)	1.태양인	75	44.92	8.59	집단간	974.96	3	324.99	3.06	0.028
	2.소양인	111	43.86	10.26						
	3.태음인	96	41.63	11.51						
	4.소음인	120	45.76	10.31	집단내	42268.00	398	106.20		
	전체	402	44.09	10.38	전 체	43242.96	401			
C1(유능감)	1.태양인	75	41.39	7.76	집단간	132.47	3	44.16	0.588	0.623
	2.소양인	111	40.62	8.70						
	3.태음인	96	39.66	9.17						
	4.소음인	120	40.68	8.77	집단내	29913.15	398	75.16		
	전체	402	40.55	8.66	전 체	30045.62	401			
C2(정연성)	1.태양인	75	49.76	10.07	집단간	864.83	3	288.28	2.99	0.031
	2.소양인	111	47.97	10.12						
	3.태음인	96	47.45	9.77						
	4.소음인	120	50.99	9.41	집단내	38381.91	398	96.44		
	전체	402	49.08	9.89	전 체	39246.74	401			
C3(충실성)	1.태양인	75	48.37	9.21	집단간	853.58	3	284.53	2.61	0.051
	2.소양인	111	48.24	10.14						
	3.태음인	96	45.77	11.06						
	4.소음인	120	49.75	10.89	집단내	43344.52	398	108.91		
	전체	402	48.12	10.50	전 체	44198.10	401			
C4(성취갈망)	1.태양인	75	47.54	10.54	집단간	960.95	3	320.32	2.09	0.102
	2.소양인	111	47.45	12.88						
	3.태음인	96	44.99	12.88						
	4.소음인	120	49.23	12.61	집단내	61144.34	398	153.63		
	전체	402	47.41	12.44	전 체	62105.29	401			
C5(자기규제)	1.태양인	75	41.45	9.80	집단간	537.54	3	179.18	1.87	0.134
	2.소양인	111	41.17	9.53						
	3.태음인	96	38.49	10.42						
	4.소음인	120	41.03	9.47	집단내	38070.74	398	95.66		
	전체	402	40.54	9.81	전 체	38608.28	401			
C6(신중성)	1.태양인	75	48.75	10.59	집단간	1217.59	3	405.86	3.13	0.026
	2.소양인	111	46.98	11.84						
	3.태음인	96	45.45	12.10						
	4.소음인	120	49.93	10.86	집단내	51670.97	398	129.83		
	전체	402	47.83	11.48	전 체	52888.56	401			

표 9-7. 신중성(C6)하위요인의 Duncan 사후검증

체질	사례수	유의수준=0.5	
		1	2
3.태음인	96	*	
2.소양인	111	*	*
1.태양인	75	*	*
4.소음인	120		*

성실성(C)은 성취해야 할 일에 대한 계획, 조직, 실행하는 실질적인 과정에서의 자기 통제에 관련이 되며, 학업 성취도, 직업 수행 성취도에 관련이 되는 척도이다. <표9-1>에서 볼 수 있듯이 성실성(C)은 유의수준 0.05에서 소음인, 태양인, 태음인과 차이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소양인과 태음인은 차이가 없었으며, 소음인, 태양인, 소양인은 차이가 없었다. 소음인과 태양인은 목적 지향적이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결단력이 있다. 또 사려 깊고, 분별력이 있으며, 과제에 대한 조직력이 뛰어나고, 시간을 엄수하며, 자신의 의무 이행이 철저하다. 반면에 까다롭고, 고지식하고, 일 벌레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태음인은 정해진 원칙을 정확하게 적용하기 힘들거나,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려는 열의가 부족할 수 있다.

유능감(C1: Competence) 하위요인은 자기 스스로를 현명하며, 신중하고, 효율적인 사람으로 평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데, <표9-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정연성(C2: Order) 하위요인은 물건이나 생활의 정리정돈을 나타내는데, <표9-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유의수준 0.05에서 태음인, 소양인은 소음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즉 소음인은 소양인, 태음인 보다 일 처리 할 때 계획과 조직화를 잘하고, 그에 맞추어서 실천하는 경향이 있다. 정연성이 높은 사람은 강박 성격 장애와 관계가 있다.

충실성(C3: Dutifulness) 하위요인은 자신의 윤리적인 행동기준에 충실하려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표9-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유의수준 0.05에서 태음인은 소음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즉 소음인은 태음인에 비해서 자신의 윤리적인 원칙을 준수하고, 도덕적인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편이다.

성취갈망(C4: Achievement Striving) 하위요인은 목표 성취를 위한 열성과 갈망 수준을 나타내는데, <표9-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태음인은 소음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즉 소음인은 태음인보다 목표 달성의 열망을 갖고, 목적 지향적이며, 부지런하며, 인생의 목표나 방향 등도 뚜렷이 설정해 두고 있는 편이다.

자기규제(C5: Self-Discipline) 하위요인은 지루함이나 역경에도 불구하고 일을 시작하고 완수해 내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표9-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신중성(C6: Deliberation) 하위요인은 행동하기에 앞서 주의 깊게 생각하는 성향을 의미하는데, <표9-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유의수준 0.05에서 태음인은 소음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즉 소음인은 태음인 보다 신중하다. 태음인은 소음인에 비해서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행동이나 말로 옮겨 버릴 수 있는 경향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QSCCⅡ와 NEO-PI-R을 통하여 사상체질의 성격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태양인

태양인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느긋하고 태연하며 이완되어 있다. 욕구가 좌절되거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타인에게 분노를 느끼지 않는다. 생활에서 외로워하거나 무력해 하지 않으며, 사회적 관계에서 놀림을 당해도 담담하게 대처한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스스로 잘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지각한다. 태양인은 태음인, 소양인 다음으로 외향적이어서, 대인관계에서 친근한 태도를 보이는 편이고 타인과 쉽게 친해질 수 있는 편이다. 사람 사귀기를 좋아하며, 가장 자신을 나타내려 하고 자기 주장을 잘한다. 활발하고 정력적인 편이며, 자주 웃고 유쾌하며 낙천적이고 모험심이 필요하거나 진취적인 직업에 흥미를 느끼는 편이다. 타인들이 정직하며 선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쉽게 믿으며, 타인의 안녕을 걱정하고 관심을 가진다. 자신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기꺼이 돕는 편이다. 또한 성취해야 할

일에 대한 계획, 조직, 실행하는 과정에서 자기 통제가 있으며, 목적 지향적이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2) 소양인

소양인은 비교적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느긋하고 태연하며 이완되어 있고, 사회적 관계에서 가장 수줍음이나 당혹감을 느끼지 않아 비웃음이나 놀림에 대해 담담하게 대처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소음인보다는 스트레스에 덜 상처받는 편이며, 태양인 다음으로 담대하다. 또한 태음인 다음으로 외향적이어서 사교적이고, 모임을 좋아하고, 적극적이고, 자기 주장을 잘하는 편이다. 가장 유쾌하고 낙천적이어서 기쁨, 행복, 사랑, 흥분의 긍정적인 정서를 잘 경험한다. 타인들이 정직하고 선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고 쉽게 믿는 편이다. 가장 이타적이어서 타인의 안녕을 걱정하고 관심을 가진다. 자신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기꺼이 도와주려고 한다. 그러나 물건의 정리나 이의 규칙적인 진행이나 실행이 어려운 편이다. 전체적으로 성실성은 떨어져서 성취해야 할 일에 대한 계획, 조직, 실행하는 실질적인 과정에서 취약하다. 학업 성취도, 직업 수행도가 낮을 수 있다.

(3) 태음인

태음인은 좌절을 경험하는 상황에서 타인에게 분노와 적의를 많이 느끼나 일상생활에서 외로워하거나 무력해 하지는 않는다. 사회적 관계에서 타인을 의식하거나 불편해 하지 않는 편이어서 수줍음이나 당혹감을 느끼지 않는 편이다. 자신의 욕구에 대한 갈망이 강하여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그러한 욕구들이 일어날 때 참고 버티지 못한다. 태양인에 비해 위기 상황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타인에게 의존적이다. 태음인은 외향성 점수가 가장 높은 집단이어서 가장 사교적이고, 대인관계에 친밀을 나타낸다. 모임을 좋아하며, 적극적이고, 태양인 다음으로 자기 주장을 잘한다. 가장 자극과 흥분을 즐기므로 밝은 색과 소란스런 환경을 좋아한다. 소양인 다음으로 긍정적인 정서를 잘 느낀다. 타인들이 정직하고 선의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편이다. 그러나 물건의 정리나 일을 규칙적으로 진행하거나 체계적으로 정리

하기가 매우 어렵고, 자신의 윤리적인 행동기준에 의한 의무나 원칙에 집착하지 않는다. 자유롭게 행동하며, 인생의 목적이나 야망이 크지 않아 자신의 낮은 성취수준에 쉽게 만족한다. 급해서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행동이나 말로 옮겨 버리나 예상 밖의 결과를 쉽게 도출해 내거나 이를 매끄럽고 신속하게 해낼 때도 있다. 전체적으로 성취해야 할 일에 대한 계획 조직, 실행하는 실질적인 과정에서의 자기통제가 가장 낮아서 학업 성취도, 직업 수행 성취도가 낮을 수 있다.

(4) 소음인

소음인은 막연한 걱정, 불안, 긴장 두려움의 정도가 높아서 자주 긴장되고, 불안 초조하다. 좌절을 경험하는 상황에서 타인에게 분노와 적의를 많이 느낀다. 외로움, 무력감, 죄책감, 슬픔을 많이 경험하며, 어려움이 있을 때 쉽게 의기소침해지며 단념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 관계에서 타인을 의식하고 불편감을 많이 느끼며, 다른 사람들이 놀리거나 비웃으면 매우 당혹스러워 하며, 수줍음을 많이 느낀다.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지 못하고 위기 상황에서 불안과 무력감을 느낀다. 타인에게 의존하는 태도를 지니나 욕구를 잘 조절하며 욕구좌절 상황에서도 잘 참고 견딘다. 대인관계에서 서먹하고 딱딱한 매너로 사람을 대한다. 사람 사귀기를 회피하며, 리더로 나서기보다는 뒤에 있기를 좋아한다. 게으른 것은 아니지만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스틸을 원하지 않으며 다소 지루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생활을 선호한다.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아니나 풍부한 사랑이나 기쁨, 행복감을 잘 느끼지 못한다. 타인에게 의심이 많고 냉소적이며, 좀처럼 믿지 않고 사람들이 부정직하고 오히려 위험하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다소 자기중심적이며, 타인의 문제에 연관되기를 원치 않는다. 물건을 잘 정리하고 일정한 장소에 두기를 좋아하며 정리 정돈된 생활을 즐긴다. 일 처리의 계획과 조직화를 잘하고 실천능력이 뛰어나며, 자신의 윤리적인 행동기준에 충실해서 자신의 윤리적 원칙을 준수하고 도덕적인 의무를 철저히 이행한다. 목표달성에 열망을 갖고, 목적 지향적이며, 부지런하며, 인생의 목표나 방향도 뚜렷하며, 행동하기에 앞서 심사숙고한다.

IV. 고 찰

NEO-PI-R인성검사 결과에 의하면 태양인은 NEO-PI와 PAI(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의 척도와 상관관계 분석(Costa & McCrea, 1992C)에 의한 조증의 성향과 유사하였다. 이는 조병태의 연구(조병태 외 2인, 1994) 사상척도와 성격요인간의 비교분석의 결과와 일치하는 점을 볼 수 있다. 조병태의 연구에서 태양인은 온정성, 자아강도, 지배성, 정열성, 대담성, 불신감, 사변성, 진보성에서 정적인 상관을 보이며, 통제력에서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성격의 일차요인에서 이차요인을 추론하면 외향요인, 독립요인, 독창성요인에서 정적인 상관을 보였고, 불안요인, 초자아요인에서 부적 상관을 보였다.

NEO-PI-R의 인성검사 결과에 의하면 소양인은 NEO-PI와 PAI(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의 척도와 상관관계 분석(Costa & McCrea, 1992C)에 의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 의하면 소양인은 태음인 다음으로 외향성향이 강한데 이는 소양인은 경조증이 강하고 외향성향이 강하다는 김종우(김종우외 3인, 1994)의 연구 중 경조증은 확인할 수가 없었으나 외향성에 대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NEO-PI-R의 인성검사 결과에 의하면 태음인은 Widiger, Trull, Clarkin, Sanderson, & Costa(1994)등의 성격장애(DSM-IV)의 성격특성과 비교에 의한 부정적 성격장애와 가학성 성격장애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성격요인검사에서 태음인이 죄책감, 불안감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아강도에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성격요인검사의 일차요인에서 이차요인을 추론하면 불안요인은 정적 상관을 보이는 조병태의 연구(조병태외 2인, 1994)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내향성과 외향성에 대한 측면에서 태음인이 우울증, 강박증, 내향성의 인격특성이 강하다고 보고한 김종우의 선행연구(김종우 외3인, 1994)와는 완전히 배치되었다. 오히려 태음인은 사상체질 중 외향성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강박증에 대한 척도인 정연성(C2; Order)이 가장 낮았고, 우울(N3; Depress)역시 다른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NEO-PI-R의 인성검사 결과에 의하면 소음인은

Widiger, Trull, Clarkin, Sanderson, & Costa(1994)등의 성격장애(DSM-IV)의 성격특성과 비교에 의한 우울적 성격장애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NEO-PI와 PAI(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의 척도와 상관관계 분석(Costa & McCrea, 1992C)과 비교하여도 우울증의 특성이 일치했다. 김종우외 3인의 연구에서도 소음인은 우울증, 강박증, 내향성의 인격특성이 강함을 보고하고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된다. 또한 소음인은 성격요인검사의 도덕성, 죄책감, 통제력, 불안감, 자기충족성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온정성, 자아강도, 지배성, 정열성, 대담성에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성격요인 검사의 일차요인에서 이차요인을 추론하면 불안요인, 초자아 요인에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외향요인 독립요인에서 부적 상관을 보인다고 보고한 조병태의 연구(조병태외 2인, 1994) 결과와 일치하는 점을 볼 수 있다.

또한 NEO-PI-R로 볼 수 있는 5개 요인, 30개 하위요인 중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5개 요인 중 정서적 민감성, 외향성, 성실성의 3개 요인만이 유의있는 차이를 보여 주었고 30개 하위 요인 중 14개요인만이 차이를 보여주었다.

두 검사의 결과에 의하면 정서적 민감성(N)의 하위요인 중 좌절, 적의 비통 등을 경험하고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분노(N2) 하위요인과, 자극과 흥분에 대한 갈망을 의미하는 자극추구(N5) 하위요인의 경우 체질에 따른 차이를 구분할 수 없었다. 분노(N2) 하위요인과 자극추구(N5)하위요인의 경우 두 요인이 모두 높으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타인에게 분노를 표현하고 폭력적으로 행동하고, 파괴행위를 할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는 요인들이나 체질에 따른 차이를 구별할 수 없음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어느 체질이건 이러한 행동이 비슷한 수준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외향성이 높은 사람은 사교적이고, 모임을 좋아하고, 적극적이고 자기 주장을 잘하며, 자극과 흥분을 좋아하고 열성적이고 낙천적이고 모험심이 필요하거나 진취적인 직업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이다. 두 검사의 결과 이러한 외향성의 척도에서 음인에 속하는 태음인이 가장 외향적으로 나타났고 소양인, 태양인, 소음인 순으로 나타난 것은 특이할 만 하다.

독자적인 판단, 풍부한 상상, 심미적 감수성, 내적 감정에 대한 민감성, 변화에 대한 선호, 지적 호기심 등을 나타내는 개방성(O)과 그 하위요인 6개에서는 체질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즉 체질에 따라서 풍부한 상상력과 이를 즐기는 정도를 나타내는 상상(O1) 하위요인, 예술과 미에 대한 감수성을 의미하는 심미(O2) 하위요인, 내면 감정의 깊이와 정도에 대한 센스와 생활에서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감정(O3) 하위요인, 다양하게 행동할 가능성을 나타내는 행동(O4) 하위요인, 광범위한 지적 호기심을 나타내는 사고(O5) 하위요인, 기존 가치와 다른 새로운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가치들에 대한 융통성과 개방성을 나타내는 가치(O6) 하위요인 모두에서 체질에 따른 차이를 구별할 수 없었다.

애타심과 이타심이 핵심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친화요인(A)은 타인을 신뢰하고,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며 솔직하고 순응적인 정도를 나타내며, 대인관계의 양식을 설명해 주는 부분인데 이 요인 역시 체질에 따른 차이를 구분할 수 없었다. 그러나 친화요인의 하위요인 중 신뢰(A1)와 이타(A3)는 체질별로 차이가 있었다. 나머지 솔직(A2) 하위요인, 순응(A4), 겸손(A5), 동정(A6)에서는 체질별 차이가 없었다. 솔직(A2) 하위요인이 높은 사람은 진실하고 솔직하며 꾸밈이 없으나 점수가 낮은 사람은 감언, 술수, 속임수로 타인을 조정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타인을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들은 자신의 진실한 감정을 표현하는 데에 조심스럽고, 자기 표현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기보다는 연출해 내는 경향이 있다. 순응(A4) 하위요인은 대인관계의 갈등 상황에 대한 반응 태도를 나타내는데, 점수가 높은 사람은 갈등 상황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피하고, 그러한 상황을 너그럽게 보며, 수용하고 양보하는 편이며, 겸손하고 유순하다. 점수가 낮은 사람은 갈등 상황에서 양보나 협조보다는 경쟁적이고, 공격적이다. 또한 자신의 노여움을 표현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동정(A6) 하위요인의 경우 타인에 대한 배려와 불행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 등을 의미한다.

성취해야 할 일에 대한 계획, 조직, 실행하는 실질적인 과정에서의 자기통제를 의미하는 성실성(C)

요인에서는 물건의 정리 정돈된 생활을 즐기며, 일처리의 계획과 조직화 및 이에 따른 실천을 나타내는 정연성(C2) 하위요인과 행동하기에 앞서 주의 깊게 생각하는 성향을 나타내는 신중성(C6) 하위요인에서는 체질별 차이를 보였으나 자신 스스로를 능력 있고, 현명하며, 신중하고, 효율적인 사람으로 평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유능감(C1) 하위요인과 자신의 윤리적인 행동 기준에 충실하려는 정도를 나타내는 충실성(C3) 하위요인, 목표 성취를 위한 열성과 갈망 수준을 나타내는 성취갈망(C4) 하위요인, 지루함이나 역경에도 불구하고 일을 시작하고 완수해 내는 능력을 의미하는 자기규제(C5) 하위요인에서는 체질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위에서 살펴본 이제마의 사상체질별 성격의 특성을 살펴볼 때 하위요인 행동(O4), 솔직(A2), 겸손(A5), 성실성(C), 충실성(C3), 성취갈망(C4), 자기규제(C5)와 사상체질 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의수준 0.05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 원인은 자기 보고형 질문지에 의한 사상체질 감별의 한계로서 자기 보고형 질문지와 전문가에 의한 체질판별을 동시에 받은 대상에 의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동의수세보원』에 의하면 이제마는 태소음양인의 수를 대체적으로 보면 태음인이 50%, 소양인이 30%, 소음인이 20% 태양인이 1%미만이라고 밝히고 있다. 농경사회의 사회적인 환경에서 태음인은 그 수가 유지되고, 태양인은 생존하기 어려웠고, 소음인도 그 수가 줄고, 소양인도 조금 줄어 5:3:2:0.1정도가 타당하다고 한다. 이러한 추정은 조선 후기에 속하는 것으로 시대적, 사회적인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 볼 수 있는 태양인 및 미분류 18%(본 연구에서는 태양인으로 표기 했음), 소양인 28%, 태음인 24%, 소음인 30%로서 현격한 구성적 차이가 있었다.

또한 사상체질 검사의 검사 정확률이 80%에 가깝다는 보고를 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 의한 태양인과 미 분류에 속하는 비율이 18%에 달하며, 태양인과 미 분류를 분류해 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사상체질별 성격을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1. 김선호(1995) 사상체질분류검사(QSCCⅡ)의 표준화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 김선호, 고병희, 송일병(1995) 사상체질검사지(QSCCⅡ)의 표준화 연구. 사상체질의학회, 사상체질의학회지7(1), 187~246.
3. 김종원, 김종우, 고병희, 송일병(1994) 사상체질분류검사(QSCC)와 다면적 인성검사(MMPI)의 비교 분석을 통한 사상체질 감별과 사상체질별 인격 특성에 관한 고찰. 대한 한의학회, 대한한의학회지 15(1), 66-74.
4. 박성식, 박은경, 최재영(1999) 설문지에 의한 사상체질 판정의 일치도 분석. 사상의학회지 1999; 11(1): 103-117.
5. 이경임(1995) 한국인의 NEO-P-I-R요인구조와 부적응 집단 프로파일,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6. 이경임, 민병모(1999) 학교 상담자를 위한 NEO인성검사, 서울, PSI컨설팅
7. 전국한의과대학사상의학교실,(1998) <http://sasang.com>
8. 조용태, 고병희, 송일병 (1994) 사상체질 분류검사의 타당화 연구(성격요인16PF, 성격유형검사 MBTI와의 비교분석), 사상의학회지 1994; 6(1), 21-39.
9. Borwin, M. D., & Buss, D. M.(1989) Structure of actreport data; Is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recaptur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988-1001.
10. Digman, J. M., & Inouye, J. (1986). Further specification of the robust factors of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116-123.
11. Golderg, L. R. (1981). Language and individual differences: The search for universals in personality lexicons. In L. Wheeler(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 141-165), Beverly Hills, CA: Sage.
12. Goldberg, L. R. (1990). An alternative "description of personality" : The big-five factor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6). 1216-1229.
13. McCrae, R. R., & Costa, P. T. Jr. (1985). Comparison of EPI and Psychoticism scales with measures of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6. 587-597.
14. McCrae, R. R., & Costa, P. T. Jr. (1987). Validation of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across instruments and observ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81-90.
15. Peabody, D., & Goldberg, L. R. (1989). Some determinants of factor structures from personality-trait descripto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52-567.
16. Costa, P. T. Jr., & McCrae, R. R. (1992d). *Stability and Change in Personality from Adolescence through Adulthood*. New York : Erlbaum Press.
17. Costa, P. T. Jr., & McCrae, R. R. & Dye, D.A. (1991). Facet scales for agreeableness and conscientiousness: A revision of the NEO Personality Inventor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 887-898.
18. Costa, P. T. Jr., & McCrae, R. R. (1992c). *Normal personality assessment in clinical practice : The NEO Personality Inventory*, Psychological Assessment. 4(1). 5-13.
19. Widiger, T. A., Trull, T. J., Clarkin, J. F., Sanderson, C., & Costa, P.T. Jr. (1994). A description of the DSM-III-R and DSM-IV personality disorders with the five factor model of personality. Costa, Paul T. & Widiger, T. A.(Eds.) *Personality Disorder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ashington, DC.